문학으로 중창불사 기록한 선사 문집

동국대 ABC사업단, 〈용암당유고 · 괄허집〉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 후기 사찰 불사를 문학적으로 기록한 두 선사의 문집이 한글로 번역돼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시리즈인 〈용암당유고 · 괄허집〉과 사지자료집인 〈대흥사 편-④재정 관련〉을 각각 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고승들의 사상과 행적, 각 시대의 불교문화와 역사, 철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집대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용암당유고 · 괄허집〉으로, 조선 영 · 정조대 설악산 신흥사와 문경 운봉사(현 김용사)에 주석하며 그 지역의 중창불사를 문학적으로 기록한 두 선사의 문집을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용암당유고(龍巖堂遺稿)〉는 조선 후기 영조 대에 설악산 신흥사 내원암에 주석한 용암 체조(龍巖體照, 1713~1779)의 유고 문집이다. 문집에는 시 79편과 기(記) 3편, 잡저(雜著) 1편이 수록돼 있다. 시 작품은 사시사철 변하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담았고, 그 속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승려의 삶을 반영했다. 청담을 나눈 여러 선사와 설악산을 유람하는 지방 관리와의 만남에서 얻게 되는 감흥이 담담하고 소박하게 표현돼 있다. 기문(記文)에는 설악산 신흥사의 중창불사와 관련된 발원문들이 있어 조선후기 중창불사의 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묶인 〈괄허집(括虛集)〉은 조선 후기 영 · 정조 대에 경북 문경의 운봉사(현 김용사)에 주석한 괄허 취여(括虛取如, 1720~1789)의 문집이다. 문집은 2권 1책으로 1권에는 시 작품 126편이, 2권에는 문 3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특징은 수행의 자세나 선리에 대한 언급이 많으며, 산문은 주로 인근 지역의 사찰과 암자의 불사와 관련된 글이 많다.

아울러 그의 행장이나 문집의 서문을 보면 정범조 · 권상일 등 퇴계 이황의 성리학을 계승한 안동지역 유학자, 문인들과 깊은 친분을 나눈 것으로 드러난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일환

신흥사 · 김용사 불사 기록돼

대흥사 재정 문헌 자료집도

ABC사업단은 "〈용암당유고〉는 설악산과 신흥사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조선후기 불가 한문학의 구현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면서 "〈괄허집〉은 18세기 경북 내륙지역의 중창불사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며, 제한적으로나마 18세기 유불간의 교섭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 소장된 귀중한 불교문헌을 조사하고 가공해 서비스하는 '사지자료집 시리즈'는 ABC사업단에서 발굴한 사찰 역사 자료를 영인 · 탈초 · 번역해 학계와 일반 독서계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출간한 〈사지자료집4, 대흥사 편-④재정 관련〉은 전남 담양의 용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대흥사 고문헌을 본 사업단이 발굴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대흥사의 사찰경제와 관련 있는 재정문서를 대상으로 했다. 재정관련 문서는 대흥사 소유 토지의 위치, 세수의 양, 부속물 등 대흥사의 경제 규모와 경영의 실제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여기에 수록된 문헌은 모두 13종이다. 이들 문헌은 사찰 운영의 실증적 자료로서, 해남 대흥사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ABC사업단은 "자료집 마지막에 수록한 '대둔사 성조소 일기'는 매우 심한 초서로 쓴 것을 탈초해 학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 문서는 1900년부터 1901년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대둔사의 건축사업 관련 출납 금액을 일자 별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당시 경제사, 생활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실증적 자료"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불교소장학자 지원 방정란 박사 선정

불교학연구사업회 결과 발표…11월 21일 시상식

올해가 마지막 공모 사업

5년간 출판 작업 '마무리'



제1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번역 부문에 방정란 박사(독일 함부르크대 · 사진)가 선정됐다.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회장 법상)는 1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번역 부문에 방정란 박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사 논문 지원 사업에는 해당자가 없었다.

올해 번역 지원사업 선정자인 방정란 박사는 〈빠라미따사마사(著 아리야슈라)〉 번역 계획으로 선정됐다.

아리야슈라의 〈빠라미따사마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각 장의 주제로 한 6개 장(paricceda)으로 이루어진 산스크리트 불교 문학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육바라밀의 요약이라는 측면과 산스크리트 불교문학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번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제1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시상은 오는 11월 21일 서울 역삼동 강남포교원서 열리며, 수상자인 방정란 박사에게는 1000만원의 번역 지원금이 전달된다. 또한, 번역 결과물은 이후 출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시작된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2023년까지 미출간된 박사논문 · 번역물들을 총서로 출간 작업이 이뤄지며, 출간이 끝나면 지원사업은 최종 완료된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불교학연구회, 〈깨달음 논쟁〉 출판본 발간



지난해 깨달음 주제 연찬

발표논문 13편 엮어 수록

불교에서 깨달음 논쟁에 대한 논문을 한데 묶은 연구서가 발간됐다.

불교학연구회는 최근 〈깨달음 논쟁〉 연구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깨달음 논쟁〉은 지난해 10~11월 3회에 걸쳐 '깨달음'을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의 연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논평들을 묶어낸 것으로 깨달음과 관련해 지역, 학파, 종파를 아우르며 논쟁 지점을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인도 · 중국 · 티베트 등 지역, 초기불교 · 중관학파 · 유가행파 등 학파, 삼론종 · 천태종 · 화엄종 · 선종 등 종파에서의 깨달음 문제를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김준호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등 전문학자 13명이 폭넓고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강점이다.

'인도 사상에서의 깨달음의 유형'에서는 불교를 배태한 인도에서 깨달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 학파와 종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선의 수행과 깨달음'에서는 깨달음이란 실천과 일치하는 선행(禪行)일치, 불이중도에 있음을 여러 조사들의 어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천태에서 바라본 깨달음'은 한국불교계에서 성철에 의해 제기된 돈오점수(해오)와 돈오돈수(증오)의 논쟁, 곧 해오와 증오의 문제에 대해 천태사상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천태의 '육즉'을 수행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을 엮은 불교학연구회는 "'깨달음' 문제가 스스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지만,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다'는 명제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교학적으로 혹은 수행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평화 위한 종교계 역할은

종교교육학회, 23일 추계대회

한국종교교육학회와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는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강대 김대건관 101호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종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종교학자들도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중국에서는 제프리 창(푸렌대), 일본에서는 가다오카 류(도호쿠대)가 발표자로 참가한다.

주제 발표로는 △선불교와 평화의 두 원천(안호영, 동국대) △중국 기독교와 동서평화의 과제(오동일, 장로회신학대) △3.1운동 정신에서의 유교(대종교)와 기독교(이은선, 세종대) △개벽종교의 평화사상(조성환, 원광대) △최시형의 생태학적 사유에 담긴 평화사상(황종원, 단국대)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철원애국단, 불교계와 접점 많다"

이경순 학예사, 불교사회硏 학술세미나서

기독교 주도 철원애국단

철원 도피안사서 결성돼

신상완 등 승려들도 참여

일제강점기 당시 강원도 내 독립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철원애국단과 불교계 항일운동의 연계성을 살핀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11월 16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최한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세미나에서 '철원애국단 사건과 불교계 항일운동'을 발표하고 강원도 내 독립운동에서 불교계 인사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살폈다.

철원애국단은 독립운동단체 중 규모나 활동 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상해 임시정부의 연통제 역할을 수행한 한국독립애국단의 지방조직으로 결성부터 활동까지 대부분 기독교인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이 도피안사에서 결성하게 된 이유와 철원애국단 사건에 연루된 승려들의 행적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도피안사는 철원 지역의 대표 고찰로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던 곳이었다. 특히 도피안사 중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도 강대용이 일정 수준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순 학예사는 "당시 지역 유지였던 강대용이 철원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애국단 활동에 관심을 안 기울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의심을 피하면서도 거주지에서 멀지 않고 지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도피안사를 결성 장소로 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당시 주지 홍월운 스님의 묵인과 결단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 사건과 관련된 불교 승려인 신상완, 김상헌, 이석윤의 행적도 살폈다. 특히 신상완은 철원애국단이 10월 제2만세시위를 계획 · 실행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이경순 학예사는 "신상완은 임시정부 내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내외를 오가며 상해 임시정부의 지시를 국내에서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철원애국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헌과 이석윤 역시 3.1운동을 경험했고,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3 · 1운동 1백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월 27일 '불교계의 3 · 1운동과 항일운동' 관련 5번째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